

## 매화 연회

이 입체 모형은 730 년에 다자이후의 소치(장관)였던 오토모 다비토(자주색 의복을 착용)의 공관에서 열린 ‘매화 연회’를 재현했습니다. 관리들은 중국에서 가져와 당시에는 보기 드물었던 매화나무 아래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서로 즉흥 와카(일본 전통 정형시)를 읊었습니다.

7 세기부터 12 세기는 다자이후의 역사 중에서도 황금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 다자이후의 관리들은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과 가깝고 여러 왕조들과 빈번하게 교류했던 경험을 통해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이들은 외교나 무예에 능숙했으며 뛰어난 와카 시인으로서도 기대받는 존재였습니다. 매화 연회의 참가자는 자신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매화꽃의 개화, 날씨, 연회의 분위기를 주제 삼아 즉흥적으로 와카를 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기록자는 참가자가 읊은 와카를 기록했습니다.

이 입체 모형에 사용된 하카타 인형은 후쿠오카의 독창적이고 뛰어난 전통 공예품입니다. 가까이서 살펴보면 술잔 속과 참가자의 머리에 매화 꽃이 보입니다. 관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다른 색상의 의복을 입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회는 일본 문화에 있어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회에서 읊었던 32 수의 와카는 만엽집(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일본 와카집, 8 세기 성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연호인 레이와(2019-)는 지금의 일본 정부와 역사가가 만엽집에 수록된 와카의 서문에 있는 한자에서 착안하여 지어졌습니다.